

광주 학운위원 '40대 주부' 주축

광주시내 초·중·고·특수학교의 '학고 운영위원회'는 40대의 주부가 주를 이루는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시교육청은 광주시내 초등학교 139곳, 중학교 81곳, 고등학교 62곳, 특수학교 5곳의 학고운영위원을 분석한 결과 전체 3천474명 중 48.1%인 1천670명이 '40대'였으며, 교원위원을 제외한 지역·학부모위원 2천222명 중 33.6%인 747명의 직업이 '주부'였다고 4일 밝혔다.

전체의 24.8%인 861명이 50대로 40대 다음을 차지했고, 그 뒤를 30대 (16.8%·583명), 60대 이상(9.7%·337명), 20대(0.6%·20명) 등 이었다. 지역·학부모위원 직업은 주부 다음으로 자영업(26.8%·595명), 회사원(13.9%·308명), 기타(8.5%·188명), 공무원(7.9%·175명) 등 순으로 나타났다. /정성필기자 camus@



‘제17회 광일배 광주·전남 직장 바둑대회’ 수상자들이 4일 대회가 끝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뒷줄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정창호, 박형수(이상 포스코), 이상(광주시청), 성덕호, 박윤섭, 김영수(이상 전남교사회), 김현승, 양호동, 방재혁(이상 창의유통), 박광주(포스코), 광주일보 박동점 경영전략본부장, 김동영 논설실장, 오규철 대회장, 광주바둑협회 정찬근 전무이사.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제17회 광일배 직장바둑대회 성료

단체전 전남교사회, 개인전 박광주씨 우승

광주일보가 주최한 ‘제17회 광일배(光日배) 광주·전남 직장 바둑대회’ (광일배)에서 전남교사회(주장 김영수)가 우승을 차지했다.

광일배에 처녀 출전한 전남교사회는 4일 한국기원 광주 남구지부(지부장 오규철 9단)에서 열린 대회 단체전에서 10승2패를 거둬 우승했다. 2위는 9승3패의 창의유통이, 3위는 광양 포스코가 차지했다.

단체전 경기의 다승자 4명이 격돌한 개인전에서는 포스코의 박광주씨가 우승했다. 박광주씨는 결승에서 전남교사회 김영수(개인 2위)씨를 288수 끝에 11집반차로 이겼다. 공동 3위는 광주시청 이상의씨, 창의유통 방재혁씨가 차지했다.

광일배 대회장의 오규철 9단은 “대부분 참가자가 아마 5단 수준으로 그 어느 때 보다 전력이 상당히 평준화된 대회였다”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전교생 72명 강진 작천초교의 너무도 행복한 어린이날

“와~ ‘도서관 선물’이다”



지난 2일 작천초교 도서관에서 이광형(왼쪽) 강진군 부군수와 김찬호 작천초교 교감이 어린이들에게 바른 독서습을 교육하고 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작은 도서관 만드는 사람들’ 기증...학생들 함박웃음

“가장 유익하고 소중한 어린이날 선물을 주고 싶습니다.”

어린이 날을 앞둔 지난 2일 오후 강진군 작천초등학교 대강당. 파스한 별빛 아래 전교생 72명이 모여 들었다.

“책 속에 모든 지식이 담겨있다”고 강조하는 ‘작은 도서관 만드는 사람들’ 김수연 대표의 독서 감의를 경청하는 어린이들의 눈동자가 반짝반짝 빛났다.

이날 작천초교는 어린이 날을 맞아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리던 뜻깊은 선물을 받았다. 강진군과 강진교육청, ‘작은 도서관 만드는 사람들’과 네이버가 함께 한 ‘작은 도서관’이 문을 연 것이다.

1921년 7월 개교한 작천초교는 올 2월 제 80회 졸업생 12명을 배출했다.

그동안 졸업생만 1만여명에 이르는 오랜 역사를 자랑한다. 하지만 1970~1980년대 2천명에 육박하던 학생수는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100명 이하로 급감했고, 폐교의 위기를 맞기도 했다. 결국 강진군과 교육청, 그리고 작천마을 주민들은 학교 살리기에 머리를 맞댔다.

일단 독서장려를 통한 우수인재 배출이 우선이라는 데 뜻을 모으고, ‘작은 도서관 만드는 사람들’에 도움을 요청했다. 얼마 후 마을 주민들의 소망은 이뤄졌다. 개관식은 어린이 날 주간의 마지막 등교일이 2일로 잡았다. 이날 ‘작은 도서관’이 문을 연 것이다.

한편 ‘작은 도서관 만드는 사람들’은 앞으로 강진지역 초등학교 10여곳에 작은 도서관을 더 개관할 예정이다. /박진표기자 lucky@

을 약속했다.

뜻밖의 어린이날 선물에 아이들의 웃음과 탄성도 끊이지 않았다. 학생회장인 이예빈(6학년)양은 “평소 읽고 싶었던 책이 많이 들어와 너무 행복하다”며 해맑게 웃었다.

윤성정(6학년)양도 “책을 좋아해 일주일에 3~4권을 읽지만 학교에 책이 없어 그동안 동화책만 읽었다”면서 “이제는 소설 등 다양한 분야의 독서로, 지식을 쌓아나겠다”고 당찬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마운옥 작천초교 교장은 “교과와 연계한 도서관 이용 수업 개설 및 학부모 도서관도움을 활용한 ‘도서관 사랑방’ 운영 등으로 전국 교를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작은 도서관 만드는 사람들’은 앞으로 강진지역 초등학교 10여곳에 작은 도서관을 더 개관할 예정이다. /박진표기자 lucky@

화창한 어린이날 5월 5일 (음 4월 1일)

기압골의 영향에서 벗어나겠으며, 대체로 맑겠다.

◇전국날씨

광주	구름 조금	13~24℃
부산	구름 조금	13~22℃
대구	구름 조금	15~23℃
대전	구름 조금	13~23℃
전주	구름 조금	13~25℃
서울	구름 조금	13~24℃
인천	구름 조금	14~25℃
안동	구름 조금	14~25℃
충주	구름 조금	12~25℃
청주	구름 조금	11~22℃
포항	구름 조금	13~23℃
울릉도	구름 조금	12~24℃
독도	구름 조금	11~24℃
제주	구름 조금	10~16℃

서해남부 앞바다=서~북서풍 파고 1.0~2.0m
남해서부 앞바다=서~북서풍 파고 0.5~2.0m
남해남부 앞바다=서~북서풍 파고 1.0~2.5m
목포 밀물 < 01:43 썰물 < 07:04
13:49 썰물 < 19:11
여수 밀물 < 08:43 썰물 < 02:35
21:17 썰물 < 14:44

▲해돋이 05:37 ▲해질 19:21 ▲달돋이 04:53 ▲달질 19:19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6(화)	7(수)	8(목)	9(금)	10(토)	11(일)
날씨						
최저/최고	11/28	15/29	14/26	13/24	12/24	12/24

어린이날 광주·전남 ‘동심 천국’

운동회·백일장·박물관 여행 등 행사 다채

제86회 어린이날인 5일 광주·전남 지역에는 어린이들을 위한 다채로운 행사와 공연이 이어질 전망이다.

KIA타이거즈는 어린이날을 맞아 광주 무등경기장 야구장에서 ‘명랑운동회’ ‘백일장’ 등 다양한 행사를 연다.

이날 오후 2시부터 롯데 자이언츠와의 홈경기기를 치르게 되는 KIA는 경기에 앞서 어린이와 선수들이 함께하는 릴레이와 대형박 터프리기 등의 운동회를 열고, 참가어린이에게는 운동화와 점퍼 등 선물을 증정한다.

광주국립박물관에서는 가족이 함께 문화체험을 하는 ‘신나는 박물관 여행’과 ‘전통문양 색칠’ 등의 행사가 하루종일 열리고 ‘해적 마테오’ 등의 영화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조선대 정문 잔디광장에서 열리는 ‘병아리페 품종’ 행사는 어린이들이 사육하던 물품을 직접 판매하고 수익금을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하게 된다.

광주시립미술관에서는 오전 11시부터 ‘도예체험’ 행사가, 무등·산수·사직도서관에서는 오전 9시부터 ‘독서퀴즈대회’가, 목포 국립해양물류전시관에서는 ‘전통 과학과 미술의 만남’ 행사 등이 열린다.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

국내영교육학 개강 5월 2일

교사 임용시험 준비에 꼭 필요한 국내영교육학에 착안했게 준비되었습니다.

수강료 10만원 (교재비 별도)

수강신청: 062-971-2020

엘레강스 정통 씨푸드 레스토랑

5월 가정의달 기념 20%할인 행사 실시

70여년 최대규모의 국제적인 레스토랑 엘레강스가 광주에 개장합니다. 이례적으로 개장하고 있습니다. 30여명의 최고 요리사들이 최야종의 음식들을 이곳에서 요리해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엘레강스 레스토랑은 정식 개장요청을 환영합니다.

주소: 광주광역시 서구 남산동 1-1 엘레강스 빌딩 1층

예약문의: 062-971-2020

www.ellegance.com